

# 봉축문화행사 다채 '국민축제'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문화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화려하게 펼쳐질 갖가지 행사들은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통종교로서의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부처님이 오신 의미를 한층 각별히 새기기 위한 음악 미술 연극 백일장 등 관련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표 참조)

특히 이번 봉축행사에는 불교문화의 각 분야별로 현황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점검해보는 '불교문화세미나' 전통불교그림자극의 재현인 '만석승놀이', 남로 황폐해 가는 환경의 중요성과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환경미술제 '생명의 근원전', 어린이 전문극단 동쪽나라가 공연하는 연극 '선덕여왕' 등과 불국사에서 열리는 KBS TV '열린음악회' 등이 눈길을 끈다.

**불교문화 세미나** 우리 문화의 근

간을 이뤄왔지만 현재 담보상태에 있는 불교문화의 현황은 어떠한지 문제점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나아갈 방향을 찾는 자리. 미술(5월20일) 문화(5월21일) 음악(5월22일) 문화재(5월23일) 등의 주제로 나흘간에 걸쳐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활동을 떠나가자는 민족환경운동불교예술인연합회(환불연)의 환경관련 미술전. 5월10일부터 28일까지 마포 서남미술관에서 열린다. 강행원 박찬갑 두시영 김영만 등 16인의 미술가가 '숨쉬는 땅' '자연송' '지리산' 등 환경관련 한국화 서양

근 민족학자 심우성씨에 의해 재현됐다. 대사없이 인형그림자만으로 극이 진행되고 법제와 사물소리가 배경으로 나온다. 막이 오르면 범종소리에 맞춰 연등행렬이 지나간후 십장생이 하나씩 자리를 잡았다가 사라지고 천년묵은 용과 잉어가 나

동쪽나라의 제4회 정기공연인 '선덕여왕'은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던 신라시대 선덕여왕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 남다른 불심으로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갔던 선덕여왕과 화랑들의 참다운 용맹, 민족의식 등을 어

린이들이 열연한다. 외국동화에 길들여진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옛문화에 대한 성찰과 순수한 꿈과 이상을 심어줄 수 있으며 온가족이 함께 볼수 있다.

이경숙 기자

## 음악·미술·연극·사진등 '함께하는 봉축' 전통불교 그림자극 '만석승놀이' 재현 환경 미술전시등 부처님 오신 뜻 고취

각계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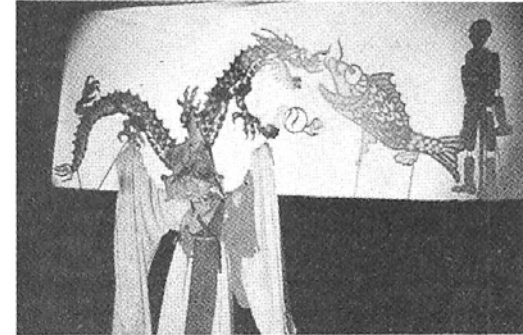
**'생명의 근원' 전** 전 세계적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를 경고하고 부처님께 제사한 연기세계의 상호관계구조를 통찰, 건강한 민족문화화장달과 대승적 차원의 문화

화 관화 조각 등 30여점을 선보인다.

**'만석승놀이'** 만석승이라는 나무인형과 연등 십장생 용 잉어가 등장하는 그림자극으로 고려시대 전성기를 구가했던 불교전통극. 1920년대까지만해도 초과일무렵 마을과 사찰에서 공연되었다. 그동안 막이 끊겼다가 최

타나 여의주를 놓고 다투는 한 승려가 나타나 여학승의 물고기가 노니는 것처럼 삼이난 종교도 구상한다는 의미의 '운심계'를 춤을 춘다. 용 잉어도 사라지고 스님은 바라춤을 통해 깨달음을 관중에게 전하며 막이 내린다.

**아동극 '선덕여왕'** 어린이



700여년간 막이 끊겼던 불교전통그림자극 '만석승놀이'가 재현된다.



환경을 주제로 한 미술전 '생명의 근원전'에 나온 강행원 작 '근원의 위기'.

〈부처님 오신날 봉축 문화행사〉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처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처
월보사 합창발표회	4.17 오후7시	연강출	월보사	아동극 '선덕여왕'	5.11~5.12	동송아트센터	동쪽나라
장대놀이 시나송회	4.20 오후4시	조계사 대웅전	조계종 문화재단	부모모듬경승	5.11~5.12	국립극장	불교문화
이철수 관화전	4.24~5.8	서남미술관	불교방송	시낭송회	5.12 오후5시	조계사 문화교육관	현대불교문화회
북한불교 사진전	4.26~5.9	경남문화재단	경남불교	청소년문화축제	5.12 오후2시	역도경기장	조계종 포교연
연꽃노래잔치	4.28 오후2시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문화예술회	인효문예대전	5.16~5.17	경주시	분황사
불교음악회	4.28 오후2시	동국대 중앙당	서울불교	윤이상불교음악회	5.17 오후5시	동국대 불교당	동국대
연꽃노래잔치	4.28 오후2시	동국대 중앙당	서울불교	합창발표회	5.17 오후7:30	KBS홀	경곡사
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	5.5 오후4시	국립소극장	국립교원연구원	사랑의편지 쓰기	5.18 오후3시	월곡청소년센터	월곡청소년센터
어린이백일장	5.5	부산시 북아래교박물관	부산시 북아래교박물관	신작한글요재	5.19	부산시청내체육관	부산불교연합회
전국어린이 부처님그리기대회	5.5	부산시 북아래교박물관	부산시 북아래교박물관	봉축꽃꽂이전	5.19~5.21	봉은사	연화꽃꽂이회
불국음악제	5.8 오후7시	KBS홀	불교방송	가족친화환경대회	5.20 오후4시	대구고려예술극장	대구광역시 신도회
불교문화제	5.8~5.10	대구광역시 월보사	불교문화재단	불교문화세미나	5.20~5.23	조계사 문화교육관	조계종 문화재단
열린음악회	5.10~5.28	서남미술관	서남미술관	만석승놀이	5.23 오후7시	조계사	우리마당·조계사문화회
생명의 근원전	5.10~5.28	서남미술관	서남미술관	불교문화대제전	5.23~6.1	여의도광장	불교TV
				열린음악회	5.26 TV방영	불국사	KBS

**불일문화원 '목요 생활강좌' 개설**

법련사 부설 불일문화원(원장 신영훈)은 오는 5월 2일부터 매주 목(오후 2~5시) 생활강좌를 개설한다.

민족문화의 전통을 재인식시키고 생활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심미안을 개발시킬 수 있는 이번 생활강좌는 △한국의 살림집(신영훈)△생활법률-유서를 씌시다(차명희) △새로

**문화 소식**

사회가 오는 20일까지 마포 서남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박정자의 불화작품과 불화반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로 그린 관음보살 연꽃 등 불화가 전시되고 있다.

**서산대사추모 글짓기대회**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둔사(주지 춘운)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사내 서산대사 유물관 앞에서 서산대사 탄신 476주년 기념 나라사랑 글짓기대회를 개최한다. 초·중·고·일반으로 나뉘 실시되는 이번 글짓기대회 종목은 시·시조·산문 3종류. (0634)34-5502-3.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 (회장 원주)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한국방문객에게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영문안내서 1만**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 (회장 원주)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한국방문객에게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영문안내서 1만**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 (회장 원주)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한국방문객에게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영문안내서 1만**

**“깨달음의 범어를 작품으로”**

18~28일 예술의 전당 서예관

이전 전시에는 불교 소재작품들이 상당수 선보이고 있다. 전시는 특히 만해 만공 경봉 효봉 성철스님 등 역대 선사들의 범어를 서법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선사들의 깨달음을 향한 치열한 구도 정신에 귀의하여 그들의 응혼무비한 정신을 서예로 전각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산라비를 연구 제작한 영가 현각대사의 '종도가' (13x2m)와 광개토태왕비를 연구·제작한 '부모은중경(7x2m)은 대역작으로 눈길을 끈다.

여초선생에게서 서예를, 구당선생에게서 전각을 사사한 전정우씨는 대한민국 서예대전 서예부문 대상 등 각종 서예관련 상을 다수 수상한 바 있다.

여초선생은 전씨의 작품에 대해 "서법 예술의 창작은 眞·美·法·理의 추구에 충실해야 하는데 심은은 이를 충실히 하고 독특한 개성과 풍격을 빛내고 있다." (속)

**전정우씨 서예 전각전**

중진 불자서예가 심은(心隱) 전정우씨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예술의 전당 서예관 2·3층 전관에서 두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그동안 발표한 서예작품 200여점과 전각 100여점을 모은 '심은 전정우 서집' 출간기념도 겸하는 이번 서예전에서 전씨는 한(漢) 이전의 갑골, 종정(銅鑄), 백서(帛書), 죽·목간 등의 독특한 서체를 응용한 작품 2백여점을 선보이게 된다.

**전정우씨 '釋'**

**해동국을 거대한 만다라로 장엄해 보라!**

**김종록 장편소설 제왕의 길**

이 땅을 불국토의 거대한 법당으로 비모하려 했던 옥룡자 도선국사의 역정을 더듬는다.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했으나 그 최락의 끝에 선 신라왕실. 그 난세(亂世)에 삼한강도를 주유하며, 이 땅의 청사를 빛낸 지도자의 출현을 예언한 선각자 도선국사! 유불선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들며 서로 어그러짐이나 축남이 없었던 대인(大人)이었고, 하늘의 뜻을 지상에서 실현시키고자 했던 그는 대담 유학승이 행세하던 시절 원효성사가 그려졌듯 이 땅에서 득도하여 비유비불비선의 해동 지성의 길을 걸었다. 그가 살았던 신라 말이나 오는 우리시대의 상황이 너무나 흡사하여 천년 전의 그의 말씀은 오늘 그대로 우리의 양식이 된다.

**삼중스님 에세이 걸망에서 배운 인생**

어머니의 애장한 눈길은 아직 가슴에 있고, 속세의 어리석음도 미처 다 허물지 않았거든... 걸망 하나 짊어진 채 집 떠난 지 40년 세월!

신국판/320쪽/6,000원